

## 日本에 있어서의 李退溪 研究 小史\*\*

宇野精一\*

朱子の 철학은 동양 한자문화권에 있어서의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철학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철학사상은 이 문화권에 다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과 일본 江戸시대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리고 조선의 李退溪(1501~1570)는 朱子 이후의 제 1인자라 일컬어지고 조선의 朱子라고도 일컬어지는 대학자이기 때문에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가 없다. 이제 이 李退溪가 일본에 미친 영향, 일본 학자가 李退溪의 저술이나 학설을 연구한 사실에 대하여 개관해 보고자 한다.

三韓시대(3~4세기)의 옛적부터 일본과 한반도와의 교류는 매우 밀접하였지만 江戸시대(1603~1867)의 일본에 있어서의 朱子學 연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壬辰(1592), 丁酉(1597)의 양란이다. 이 전쟁에 대한 비판은 일체 생략하는 바이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조선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섭취할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승되고 있는 도기의 제작기술, 또는 처음으로 수입된 인쇄용 銅 활자라든가 서적 또는 양국간에 공적인 국가사절의 왕래가 재개되는 등, 문화적 교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李退溪의 학문은 이들 가운데서도 최대의 주제였다.

---

\* 東京대 명예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44호(1984) 게재논문. 이 논문은 1984년 서독 함부르크대학에서 개최된 제 7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 주제논문임.

일본학자로서 가장 빨리 李退溪의 이름을 안 사람은 아마 藤原惺窩(1561~1619)였으리라 생각된다.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惺窩는 이미 1590년에 조선의 사신 金鶴峯과 회견하고 시와 문장의 교환을 한 바 있으며, 뒤에 포로가 되어 일본에 건너온 姜沆과 친한 교제를 맺고 있다. 김학봉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李退溪의 高弟 3인 중의 하나이고, 강항은 직접 관계는 없지만 李退溪를 깊이 존경하고 있던 사람이므로 이 두 사람으로부터 惺窩는 李退溪의 이름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점으로 말하자면 惺窩와 그 제자 林羅山(1583~1657) 두 사람은 퇴계의 著 『天命圖說』을 읽은 바 있다. 그것은 惺窩가 이 저서에 기술되어 있는 퇴계의 학설을 격찬하고 있고, 羅山은 이 저서의 「跋」 3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惺窩는 퇴계가 출판한 『延平答問』(朱子編纂으로 퇴계의 跋이 있음)을 매우 존중하여 애제자 林羅山에게 이 저서를 전수시킨 점으로도 분명하다. 기타 퇴계 편찬의 『朱子書節要』 20권을 22세시에 읽은 사실이 그의 『年譜』에 보인다.

그러나 李退溪의 학문사상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그 학문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은 山崎闇齋(1618~1682)였다. 闇齋는 朱子學을 연구한 위대한 학자로 문인도 많았고 그 영향력은 컸기 때문에 그 후계자들 사이에는 널리 존경받고 있다.

그 후계자 가운데서 『朱子書節要』, 『自省錄』 등 李退溪의 중요 저서를 연구한 사실이 판명된 저명한 학자를 그 학문적 계보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淺見綱齋—若林强齋—西依成齋—古賀精里  
└佐藤直方—稻葉迂齋┐ ┌服部栗齋  
山崎闇齋└ ┌村土玉水┐  
└ ┌村土淡齋┐ ┌岡田寒泉  
└三宅尙齋—蟹 養齋—中村習齋—深田香實—細野要齋  
└谷 秦山—宮地精軒—植木惺齋

淺見綱齋(1652~1711)  
 若林強齋(1679~1723)  
 西依成齋(?)  
 古賀精里(1730~1817)  
 佐藤直方(1650~1719)  
 稻葉迂齋(1684~1760)  
 村土淡齋(1700~1772)  
 村土玉水(1729~1776)  
 服部栗齋(1736~1800)  
 岡田寒泉(1740~1816)  
 三宅尙齋(1662~1741)  
 蟹 養齋(1705~1773)  
 中村習齋(1719~1799)  
 深田香實(?)  
 細野要齋(1811~1878)  
 谷 秦山(1663~1718)  
 宮地靜軒(?)  
 植木惺齋(?)

山崎학과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학자로 李退溪를 매우 존경한 학자는 大塚退野(1677~1750)가 있다. 大塚退野은 원래 양명학자였으나 퇴계의 저서 『自省錄』을 읽고 朱子學으로 전향한 학자로서, 그는 『朱子書節要』를 숙독하고 많은 記入을 남겼을 뿐 아니라 존신한 나머지 전 20권을 필사한 사실이 友人인 藪愼庵(1688~1744)의 「題繕本朱子書節要首」(愼庵遺稿 권6)라는 문장에 의해 알려져 있다.

그는 熊本實學派의 開祖가 되었으며 그의 문류에서는 藪新庵의 아들 藪孤山(1735~1802), 橫井小楠(1809~1869), 元田東野(1818~1891) 등의 저명한 학자를 내고 있다. 熊本에는 이같은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熊本 출신인 필자의 부친 宇野哲人(1875~1974)도 젊은 시절부터 李退溪 학설의 일부를 알고 있는 듯하며 그 젊은 날의 저서 『支那哲學史講話』(1914)에 「陳北溪, 李退溪 등은 ……朱子の 설의

명료하지 않은 곳을 철저하게 밝히고 있다。」(p 293)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闇齋가 특히 존중한 『朱子書節要』는 江戸시대에 일찍부터 朱子學 입문서 또는 요약서로서 가장 널리 읽혀진 것 같으며, 일찍이 1656년에 출판되었는데, 뒤이어 1671년, 1709년 나아가 明治 4년인 1871년에도 출판되고 있다. 이렇게 가끔 출판된 것은 상당한 독자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明治시대(1868~1912)는 일본이 정치, 경제, 군사 등만 아니라 학문에 있어서도 極力 서구화를 도모했기 때문에 동양학은 그다지 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朱子學에 대해서도 중국 철학사상의 한 분야로서 연구되는 것 뿐이어서 「朱子學」이라는 특정한 학문으로서의 연구는 쇠퇴 일로였다. 이 사실은 그러나 학문의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는 유효한 것이었다고도 생각되지만, 학계의 경향이 그렇게 되니까 자연 『朱子서절요』라는 서적도 잊히게 되어, 오히려 朱子の 학문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朱子文集』, 『朱子語類』와 같은 전집서가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李退溪의 이름이 일반으로부터는 차츰 멀어지게 된 것도 부득이한 추세였다고 여겨진다. 한편,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필자의 부친의 前記 저서, 그것은 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몽적인 개설서였으나, 그러한 서책에 李退溪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지금부터 10여년 전, 당시 한국계 일본인 金容基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1930년경에 王仁박사의 頌德기념비를 上野공원의 一角에 건립함에 있어 당시의 일본 학자들을 설득하여 실현시킨 인물이었다. 이 비는 현재도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

이 王仁박사는 일본의 應神天皇 16년(400년 경)에 백제로부터 일본에 건너온 학자로서, 그 때 그가 『論語』와 『千字文』을 전달했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에 문자—물론 한자—를 전한 최초의 일이라 한다. 그러므로 王仁 박사는 일본 문화의 은인인 셈이다.

前記한 김씨는 王仁 박사의 비석 건립시에 知面이 있던 필자의 부친을

찾아와(王仁博士碑 건립 때 관계한 학자들은 모두 死去하고 생존학자는 부친 뿐이었다) 王仁 박사에 필적할 李退溪는 일본문화에 제 2의 은인이므로 그 기념비를 王仁 박사 비석과 나란히 건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친은 그 때 이미 90여세의 고령이었으므로 그 무렵, 李退溪의 연구가로서 거의 일본에서 유일하다 할 阿部吉雄(1905~1978) 박사와 상담한 결과 비석을 세우기보다는 학문적으로 顯彰할 일이라 하여 李退溪 연구회가 창립된 것이 1972년이였다.

阿部 박사는 東京제국대학 졸업 후 한때 山崎闇齋 연구에 종사한 적이 있었으며, 그 뒤, 당시의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부임한 뒤로 李退溪 연구에 전념하여 1944년에 이미 『李退溪』라는 이백 수십 페이지의 책을 출판하고 있다. 더구나 그 당시 阿部 박사도 참고로 했던 문헌으로서,

高橋亨 박사 「李退溪」(잡지「斯文」), 白神壽吉씨 「李退溪선생전」, 朴種鴻씨 「李退溪 선생의 교육사상」(『경북의 교육』)

등의 논저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연구회는 「李退溪의 학문을 중심으로 동양정신문화 연구와 그 보급에 힘쓰고 한일친선의 정신적 기반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회는 微力이어서 이렇다 할 활동도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인데, 1975년에는 阿部박사 편찬의 「일본각판李退溪전집」 상하 2책을 출판하였다.

이 회의 초대회장은 필자의 부친 宇野哲人이었으나 그의 몰후(1974) 阿部吉雄 박사가 회장이 되었고 1978년에 死去한 뒤로는 필자가 3대째의 회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阿部 박사야말로 현대에 있어서의 李退溪 연구의 제 1인자이며, 학위논문 『日本朱子學と朝鮮』 외에 저서 논문이 다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벌써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나 뒤를 잇는 연구가로서 今般에 출석한 友枝龍太郎 박사, 高橋進 박사, 倉田信靖 교수 등 많은 사람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그럼으로써 李退溪연구회를 설립한 보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덧붙여 前記한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출판에 있어서는 한국의 「퇴계학 연구원」 이사장 李東俊씨의 원조에 의한 것이었고, 그 밖에도 이동준씨의 협력원조에 힘입은 바가 많다는 것을 감사함과 아울러 병기해 둔다.

다음으로, 江戸시대에 있어서의 李退溪 관계 서적 출판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江戸시대에는 일본인 자신의 저서 외에 중국의 서적을 그대로, 또는 훈점을 달아 출판한 것이 많이 있어 이것을 「和刻本」이라 일컫는데, 李退溪 관계 和刻本도 상당히 많이 출판되고 있다. 이것은 이들 서적의 중요성을 나타냄과 아울러 상당히 많은 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중에는 원본의 流傳이 상실된 것과, 매우 희소하여 和刻本으로 겨우 오늘에 전해지는 것, 일본에서 역으로 한국으로 전해진 것도 있어 연구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和刻本은 대략 다음 두 종류가 있다

- (1) 李退溪 자신이 저술 또는 편찬, 출판한 것.
- (2) 李退溪 자신의 편저는 아니나 관계가 깊은 것.

이 안에는 퇴계의 논문이라도 단행본으로서 조선에서는 출판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이하, 阿部 박사 편찬의 『일본각판 李退溪전집』에 대해 설명한다.

(1)에 속하는 것

- 朱子書節要 20권

李退溪의 대표적 편찬의 하나로 조선에서도 널리 읽혔으나 일본에서도 山崎闇齋 및 大塚退野이 이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 문인 및 그 학파의 사람들에게 널리 읽혔다. 그 가운데서도 稻葉迂齋, 默齋 부자의 문류에서는 이 책을 일과로 읽는다는 규약이 있었다. 大塚退野이 이를 존신하여 전편을 필사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의 和刻本이 4

종이 있다는 것도 상술하였으나 이것들은 서로간에 다소의 異同이 있다.

이 책은 「節要」라는 명칭이 표시하는 바와 같이 朱子의 서한 가운데서 그 학설상 가장 중요한 것 약 3분의 1을 추리고 문인이나 師友의 略傳을 附載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발췌가 아니라 朱子의 학설을 충분히 연구한 결과여서 朱子의 사상적 정수는 여기서 끝났다는 정평이 있다.

• 自省錄 1권

李退溪가 문인과 지우에게 보낸 서한 22통을 自選하여 반성의 재료로 삼은 것으로서, 출판할 의사는 없었다. 이 사실은 嘉靖 戊午(1585)년 端午 후 1일의 日附가 있는 퇴계의 識語(편찬의 취지를 적은 짧은 문장)에 의해 분명하다. 그 때문에 『自省錄』 및 그 識語는 상당히 뒤에까지 문인들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萬曆 13년(1585)에 조선서 출판된 책이 있다는 것이 和刻本에 그 刊年記載가 있음으로 해서 판명되었다. 그 해는 퇴계가 작고(1570)한지 15년 뒤다. 다만, 1600년 간행의 『퇴계선생문집』에도 이 識語가 게재돼 있지 않은 것은 이 『자성록』이 내용적으로는 문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다지 주목을 끌지 않았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이 萬曆 간행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일본의 간행본에는 3종이 있고, 어느 쪽이나 「萬曆 13年(1585) 云云」의 원본 刊記가 그대로 찍혀 있다. 阿部 박사가 편찬한 상기 전집에는 「寬文五年己巳(1665) 三月吉旦二條通玉屋町村上平樂寺開板」 「萬治二年己亥(1660) 冬 11월 石齋鵜飼信之訓點」이라는 刊記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앞서 출판된 「古板本」과 「二條通……開板」이라는 문자를 삭제하고 인쇄한 後刷本이 있다.

이 책은 惺窩와 羅山도 몰랐으나 闇齋가 1650년에 처음으로 읽고 크게 감격하였고 大塚退野도 이 책을 읽고 朱子學로 전향했다고 하는 중요한 문헌이다. 또한 훈점을 시행한 鵜飼石齋의 아들 鍊齋는 闇齋의 문

인이었기 때문에 闇齋가 읽은 책은 아마 조선간본, 즉 만력간본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증거는 없지만 闇齋와 石齋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펴 뒤에 가서 도산서원에서 『自省錄』이 출판되었는데 阿部 박사에 따르면 이것은 아마 修交使가 일본에 있어서의 『自省錄』의 존송에 자극을 받아 출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시기는 1793년에 퇴계의 『言行錄』이 간행된 전후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한일문화교류의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天命圖說 1권

조선의 鄭之雲이 朱子の 理氣心性설을 도해한 것이다 李退溪가 考訂을 가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한 데다가 문인인 奇大升의 질문에 답한 「四端七情分理氣辯」이 부록으로 돼 있다. 원본은 퇴계의 嘉靖癸丑(1553) 12월이라고 기록한 「天命圖說後叙」를 싣고 있으며, 嘉靖甲寅(1554) 正月朔의 정지운의 序가 있다.

和刻本은 正保 3년(1646), 慶安 4년(1651) 등에 인쇄돼 있다. 전체는 원본과 같다고 생각되나 권말에 林羅山의 跋이 있다. 이에 의하면 羅山은 이 「天命圖說」을 소장하고 있어 이것을 惺窩에게 보였던 바 惺窩도 이 「四端七情」론은 明의 羅整庵(1465~1547)의 『困知記』보다 뛰어나다고 평했다 한다. 또한 『年譜』에 따르면 羅山은 22세 시에 이 책을 읽고 있다.

• 聖學十圖 附 戊辰封事 1권

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10항목에 대하여 퇴계가 고인의 논설 중 중요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을 적출하여 이것을 圖로 표시한 것이 『聖學十圖』이며 隆慶 2년 戊辰(1568)에 선조에게 바친 政教에 관한 6개조의 上奏文이 『戊辰封事』다. 모두 『退溪文集』 안에 실려 있으나 이 둘은 퇴계의 최대의 업적으로서 그 학파로부터 매우 존중 받



왔기 때문에 하나씩의 단행본 또는 양자 합각본이 많다.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중시되지 않았으나 물론 和刻本은 있으며, 간행 년월이 분명한 것으로는 承應 4년(1655)의 것이었다.

• 易學啓蒙傳疑 4권

朱子の『易學啓蒙』에 대하여 諸儒가 해설한 것을 다시 분명하게 밝히고자 퇴계가 자신이 생각한 것을 기록하고 그 위에 명의 韓苑洛의『易學啓蒙意見』 안에 있는 주요 견해를 채록한 것이다.

和刻本에는 연월이 분명한 것으로는 明曆 3년(1657), 寬文 9年本(1669) 등이 있는데 板으로서는 양자가 꼭 같다고 한다.

• 朱子行狀 1권

송의 黃榦(朱子の 제자)의 著에 퇴계가 加註한 것.

이 책은 퇴계 미완성의 書인『宋季元明理學通錄』 11권, 『외집』 1권, 計 12권의 제1권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다. 상기 12권의 책은 萬曆 4년(1576) 퇴계의 高弟 趙月川 등에 의해 간행되고, 그 뒤 이 책만이 약간 체제를 바꾸어 간행되었다. 그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萬曆 13년(1585) 이전이라는 것은 판명되었다. 현재 이 조선판이 매우 희귀한 것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인다. 그와는 달리 和刻本은 수 종류가 있다.

이 책을 처음으로 표창한 것은 闇齋였고, 문인인 淺見綱齋 등에 대해서도 朱子를 공부하려면 朱子學의 이론을 배우기보다는 우선 이 책을 숙독하여 朱子의 인간상을 알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 때문에 山崎派 사람들은 이를 교과서로 삼고 강의를 되풀이하였다. 판본의 종류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일본에서 매우 중시된 것은 일본인의 朱子學이 인간 형성에 중점을 둔 데 반하여 조선에서는 그것도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형이상학 방면이 중시되었기 때문일 것이

다. 이 『朱子行狀』과 『聖學十圖』의 존중도가 상반되는 것은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된다.

• 心經附註 4권

송의 眞德秀의 著 『心經』에 명의 程敏政의 附註가 있고, 다시 퇴계의 「心經後論」을 부록하고 있다. 퇴계 자신의 저술은 아니나 이 책은 퇴계가 대단히 존중한 책으로 그 「心經後論」은 그의 심혈을 기울인 문장이다.

일본에서는 그다지 존중하지 않은 듯하나 正保 4년(1647), 慶安 2년(1649) 및 天保 4년(1833) 등 상당히 자주 간행된 바 있다.

• 延平答問 2권

이것은 宋의 李延平과 朱晦庵의 편저로서 퇴계 자신의 편저는 아니다. 그러나 퇴계의 跋이 붙어있어 퇴계가 간행했다는 점, 중국 본토에서는 대부분 亡佚돼 버렸기 때문에 겨우 이 퇴계간행본에 의해 오늘에 전승되었다는 점, 더욱이 일본에 있어 이 책이 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의 지대한 점 등의 이유를 놓쳐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책이다.

퇴계의 跋에 따르면 퇴계는 朴希正과 의논하여 제주 牧使 李剛而에 위촉하여 간행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 日附는 嘉靖 33년(1554) 秋九月既望이라고 돼 있으므로 아마 그 다음 해에는 간행되었으리라 짐작된다.

和刻本은 正保 3년(1646)이후로 2~3종이 있는데 어느 쪽이나 李退溪 자필의 발문을 그대로 模刻하고 있다.

이 책은 惺窩가 크게 존중하여 이를 林羅山에게 전수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羅山 또한 이를 존중한 나머지 스스로 필사한 것이 현재 일본의 내각문고에 보존돼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본서는 일본학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퇴계의 간행이 없었더라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승될 수는

없었으리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닌다.

(2)에 속하는 것

• 李退溪書抄 10권

이것은 일본의 村土玉水가 편찬한 것이다. 내용은 퇴계의 문집안에서 서한문 545통을 선발하여 10권으로 묶은 것. 제 1권에는 퇴계의 연보와 행실을 담았다. 古賀精里의 文化 3년(1806)의 序, 岡田寒泉의 문화 6년(1809)의 跋이 있다. 간행된 것은 실로 玉水 歿後 30년 뒤였다.

玉水는 특히 퇴계를 존경하여, 「자신은 朱子の 학문을 이씨의 序에 의해 會得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체재 내용을 보아서도 퇴계의 『朱子서절요』를 본따서 편찬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古賀精里의 서문에 따르면 그 추측이 옳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본서는 文化 8년(1811) 德川幕府에 대한 최후의 朝鮮 修交使를 대마도에서 접대하였을 때 古賀精里가 正使인 金履喬에게 선사하였는데, (草場珮川, 『對禮餘藻』) 김씨가 이것을 퇴계의 자손 李泰淳에게 보였던 바, 이씨는 감격하여 이것을 배끼게 하여 도산서원으로 보냈으며, 이래 이를 傳存시키고 있다 한다.(松田甲, 『日鮮史話』)

이는 내용으로서는 별로 문제삼을 정도의 것은 아니나 그러한 견지로 보면 퇴계의 『朱子書節要』도 같은 성질의 책이다. 퇴계가 朱子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학자가 얼마나 퇴계를 존경하였는가를 알기에 족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 西銘考證講義 1권

이 책은 퇴계가 선조에게 進講한 것으로서, 이 역시 내용적으로는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단행본이 간행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山崎闇齋가 이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 문류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시되었다.

간본은 寬文 8년(1668)이 최초인 듯하며, 기타 元祿 6년(1693), 그리고 다시 明治 2년(1869)의 간본도 있다.

• 七先生遺像替 1권

七先生이란 宋學의 대표적 학자들로서 周濂溪, 程明道, 程伊川, 邵康節, 張橫渠, 司馬溫公, 朱晦庵의 7명을 말한다.

퇴계는 朱子가 만든 6선생의 화상의替와 朱子화상의替를 모사하여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었는데 퇴계 작고 후 萬曆 12년(1584)에 海州牧使 崔興源이 이替를 입수하여 石刻, 拓本하여 동지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 책은 아마 그것을 縮寫하여 화상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阿部박사의 해설) 퇴계의 필적은 조선에 있어서도 존중되고 있었으며, 이것은 특별히 퇴계의 필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본에서도 이렇게 출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본은 조선에는 없고, 일본에서 寬文 9년(1669)에 간행된 것이다.

이상을 통람하면 퇴계의 저술 또는 관계문헌으로서 일본과 조선 양국에서 중시·존중되었던 것(가령 『朱子書節要』)은 물론 있었지만 그 밖에도 조선에서는 중시되었어도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가령 『聖學十圖』)과 일본에서는 중시된 데 반하여 조선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가령 『自省錄』, 『朱子行狀』, 『西銘考證講義』 등)이 있다.

이 경우 『李退溪文集』에 수록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행본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단행본으로서 존중되었던 『自省錄』, 『西銘考證講義』도 모두 문집에 수록돼 있었고 조선에서 단행본이 된 『聖學十圖』도 『文集』에 수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을 통하여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던 것은 그것이 특별히 중시 존중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일본에서 편찬된 『李退溪書抄』는 상술한 바와 같이 퇴계의 『朱子書節要』를 본뜬 것으로서, 퇴계가 朱子를 존경한 것과 같이 일본학자가 퇴계를 존중한 결과였음과 아

올려 그 분명한 證左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위에서 기술한 양국이 존중했던 문헌, 논문의 相違는 저절로 양국 학풍의 상위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조선에 있어서는 宋學, 朱子學의 理氣說 곧 형이상학적 이론에 흥미를 느꼈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 있어서는 인간형성, 자기鍊成 方面에 관심이 깊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일본에 있어 『自省錄』이나 『朱子行狀』이 중시되었던 점, 闇齋이 문인들에 대하여, 朱子를 공부할 생각이라면 이론보다도 먼저 『朱子행장』을 숙독하여 朱子의 인간상을 알고 배울 일이라고 가르친 것 등은 더더구나 그같은 대목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에 있어서는 인간형성이나 자기수련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聖學十圖』, 『戊辰封事』를 존중한 것으로도 명백하다. 한편 일본에 있어서도 형이상학에 흥미와 이해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퇴계의 대표적 철학설인 「四端七情分理氣辯」을 惺窩 및 羅山이 격찬했던 사실로 판명된다.

어떻든간에 李退溪의 학풍 사상이 일본에 미친 영향의 重且大함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만 퇴계가 일본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주고 존경을 받은 것은 퇴계 자신의 학풍이 자기鍊成을 주요시했던 것으로서 일본인의 학풍에 합치돼 있었던 점도 큰 이유였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퇴계학연구원 譯)